

지역 소식통

고창 장학재단, 인재양성  
농생명식품 장학생 신설

제고창군장학재단(이사장 유기상)이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장학생은 3개 분야(성적우수, 특기(예·체·기능), 농생명식품 인재)로 나눠 선발하고, 총 1억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적우수는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특기(예·체·기능) 장학생은 도 대회 이상 경기·경연 1~3위 이상 수상한 학생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농생명식품 인재육성 장학생'을 신설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생명 인재를 위해 국가공인 농수산 식품 분야 기능사급 이상 자격증 취득 학생, 관련분야 도단위 이상 공인기관에서 주최한 대회의 3위권 내 수상자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고창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고창군청 율령행정과 사립키우기팀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 극복 일자리사업  
정읍시, 참여자 추가모집

정읍시가 오는 8일까지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생활방역인력(청사·학교) ▲간접공공업무지원 ▲청년일자리 등 3개 분야 총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과 고용감소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사업은 10월 19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사업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읍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배제자는 대학생(휴학생 제외), 공공일자리 중복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더이상 확산 안돼”

## 확진자 연이어 발생... 유진섭 시장, 긴급 기자회견 양지마을 이동 제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면 중단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6일 정읍시청 다목적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대책 이행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이 여성의 자녀 4명과 사부모 친정 오빠 등 7명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남편과 시댁 친인척 6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 9명에 대한 검사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5일 21시 50대 중국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6일 정읍

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확진자들을 즉시 군산의료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확진자 동선 거주지와 방문지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해 방역 소독을 완료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을 파악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시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심층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경로를 밝히고, 지역 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고강도

로 보완·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정읍시 양지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18일까지 이웃거리 접촉을 금지하고 마을 밖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특성상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아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또,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 내 60개소의 어린이집과 30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을 결정했다.

다만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아이를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보육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지역 내 노인시설 879개소와 장애인시설 17개소를 휴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 간접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휴관하고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도 잠정 중단한다.

시는 시기가 엄중한 만큼 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사람 간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SNS로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모임과 회식 등을 자제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유진섭 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진섭 정읍시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6일 정읍시청 다목적공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에 써 주세요”

### 고창 공음면 이장단협 등 성금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군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기 위한 군민 성금 모금이 코로나19 어려운 경기에 돌불하고 심시일만 모아지고 있다.

6일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공동위원장 진윤식 정남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상 건립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공음면 이장단협의회(회의회장 정경열 부회장 최경연 총무 전홍일 재무 최영동)에서 1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

공음면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무장기포지(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성지다. 또 오군호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장 등 군민들이 뜻을 모아 동상건립 성금 모금에 참여해오고 있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최근 기부금 모금 등락을 마치고 성금을 모금중이며 성금모금기간은 내년 9월15일까지다.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 설치 수량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해 2022년 전봉준장군 탄생 제 166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동상 제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동학농민혁명 성지 고창군은

군민들의 자발적으로 전봉준 장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동학농민 성지 의향 고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족회, 기념사업회, 종교단체, 농민회 여성단체, 이장단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7월 청림총회를 개최하고 전봉준장군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진윤식 위원장은 “동상 건립을 계기로 군민이 하나 되어 전봉준 장군의 얼을 기리고 민족 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부안터미널 일원에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코로나 블루 극복을”

부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달 28~29일, 지난 5일 등 3일에 걸쳐 부안터미널 일원에서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로나 블루(Corona Blue·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 극복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과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현수막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코로나 블루 극복방법을 홍보했다.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올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과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에 부안군이 선정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위기상황의 청소년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청소년안전망선도사업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허브 역할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형태의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문열어

고창군과 한빛원전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김준성)는 6일 오후 3시 고창군 고수면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고창분소(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기상 고창군수와 김준성 영광군수, 최은영 영광군의회 군의장 이승철 한빛원전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운영 현황보고, 현관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자들이 거리를 두고 분소를 둘러보는 순으로 간략하게 열렸다.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는 한빛원전이 2개 광역권(전남·전북)에 포함돼 효율적인 방시는 감시

활동을 위해 별도의 분소 설치 필요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전북광역에 대한 방시는 감시 활동을 위해 별도의 분소 설치 필요와 전북광역에 대한 방시는 감시활동 강화, 투명한 정보공유로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산업부 지침 시달 후 영광군 관련 조례개정을 완료해 고창 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됐다.

고창분소는 환경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전처리와 분석실을 갖추고 분소장 분석원 사무실 3명이 일한다. 향후 고창과 전북지역의 환경방사능 분석과 원전 안전 감시활동 업무를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원전관련 정보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노란신호등’ 2곳 설치

정읍시가 국·도비 7,000만원 포함 총 1억 2,000만원을 들여 북초교 사거리와 정읍초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발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2개소의 어린이 교통

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시는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노란신호등’이란 기존 검정색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해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해 속도 감속과 집중도를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